



“내가 세계 최고”

양용은이 12일 중국 상하이 시산인테너셔널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HSBC 챔피언스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즈·퓨릭도 놀란 ‘깜짝샷’

양용은, HSBC 유럽 프로골프투어 우승 구센에 짜릿한 역전승... 최경주 공동 9위

‘야생마’ 양용은(34·계이지디자인)이 세계 골프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와 2위 짐 퓨릭(미국), 그리고 6위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 세계적 강호들을 모조리 제치고 난생 처음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양용은은 12일 중국 상하이 시산인테너셔널골프장(파72·7천165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HSBC챔피언스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때려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유럽프로골프 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03년 린데 저먼마스터스 챔피언 최경주(36·나이키골프)와 지난 2월 말레이시아오픈을 제패한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에 이어 세 번째다. 우승상금 65만6천 유로(7억8천745만원)의 엄청난 상금도 상금이지만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일파인스클에 응시해 ‘빅리그’를 노크할 예정인 양용은은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이번 대회에는 부동의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골프황제’ 우즈와 퓨릭, 구센, 그리고 세계랭킹 7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11위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12위 헨릭 스텐손(스웨덴), 14위 데이비드 하웰(잉글랜드), 15위 폴 케이지(잉글랜드), 18위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 20위 크리스티안 비에라(미국) 등 세계 20위 이내 선수만 10명이나 출전했지만 양용은은 이들을 모조리 따돌렸다. 세계랭킹 77위인 양용은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50위 이내 진입도 가능해 내년 PGA 투어 카드얻어도 4개 메이저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 시리즈 등 굵직한 대회에 출전할 기회도 잡을 전망이다. 우즈는 5언더파 67타를 때려 양용은에 2타 뒤진 12언더파 276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2타를 줄인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합계 7언더파 281타로 퓨릭 등과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양용은이 시상식장에서 타이거 우즈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다.

잡초 근성 연습 벌레 ‘제2의 최경주’

양용은은 누구 양용은은 잡초같은 근성으로 처근처근 세계 무대에 다가서고 있는 ‘제2의 최경주’이다. 양용은은 아마추어 시절에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못했고 당연히 국가대표 발탁 등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멀었던 선수. 1996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 상금랭킹 9위에 올라 신인왕을 차지했지만 그저 ‘보통 선수’에 불과했다. 2002년 SBS최강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무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과 ‘큰 무대’를 향한 양용은의 의지는 식지 않았다. 아시아프로골프 투어와 일본 무대를 끊임없이 노크하던 양용은은 2003년 일본프로골프 웨일파인스클에 수석 합격했고 2004년 일본 무대 첫해부터 올해까지 성공시대 열을 가고 있다. 제주도 출신으로 바람이 부는 코스에서도 성격이 좋아 스스로를 ‘바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부인, 아들 3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 집 을 베이식프로 샴이 일본 투어를 뛰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형태 시즌 최종전 우승컵

KPGA 하나투어 몽베르 챔피언십 1위



하나투어 몽베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김형태가 여자친구 변희진씨에게 우승컵을 건네며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프로 7년차의 김형태(29·이동수패션)가 한국프로골프(KPGA)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김형태는 12일 경기 포천의 몽베르골프장 브랭팡·에페코스(파72·7천199야드)에서 열린 하나투어 몽베르 챔피언십 마지막날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97타로 김창윤(23·힐라코리아)을 5타차로 제쳤다. 특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김형태는 12월15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약속대로 우승컵으로 정식 프로포즈를 하는 기쁨을 누렸다. 2라운드에서 김창윤에 1타차 선두로 도약한 김형태는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몰아쳐 2위와 차이를 6타차로 벌리면서 사실상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시즌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상금왕은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이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은아 ‘3년 설움’ 한방에

KLPGA 최다 상금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정상

무명 선수나 다름없었던 프로 3년차 임은아(23·힐라코리아·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 사상 최고 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임은아는 12일 경기도 안성 세븐힐스골프장(파72·6천241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임은아는 한국여자프로골프 58년사상 가장 많은 1억2천500만원의 상금을 받아 3년간 계속된 무명의 설움을 한꺼번에 털어냈다. 특히 지난해 PAVV 인비테이셔널에서 최종 라운드 때 박희영(19·이수건설)에게 7타차 대역전을 당했던 아픔도 깨끗하게 씻어냈다. 9년만에 4라운드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임은아는 첫날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한번도 리타보도 맨 뒷자리에서 밀려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일궈냈다.



임은아는 16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친데 이어 2m 퍼퍼트가 빛나기면서 다시 김보미에 1타차로 쫓겼으나 가장 어렵다는 17번홀(파4)을 무난하게 파로 막아낸 뒤 18번홀(파4)에서 우승을 자축하는 1m 버디 퍼트를 잡아넣어 완승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톱10’ 입상이 한 번도 없었던 김보미는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합계 5언더파 283타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4천250만원의 거액을 쟁기는 파란을 연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대만에 무너져 코나미컵 결승행 좌절 한국야구 아시안게임 3연패 ‘빨간불’

‘아시안게임 3연패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 프로야구 최강을 거리는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6’은 4개국 챔피언의 자존심 싸움 못지 않게 코앞으로 다가온 도하 아시안게임의 메달 색깔을 짐작하는 시험 무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아시안게임에 사회인야구팀이 출전할 일본과 최약체인 중국을 빼더라도 미국 프로야구와 일본 무대에서 뛰고 있는 해외파까지 총망라한 대만은 한국의 금메달을 위협할 최대 ‘복병’이기 때문이다. 도하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김재박(LG) 감독의 지휘 아래 기대를 모았던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 메이저리거를 제외하고 순수 국내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반면 대만은 올해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공동 다승왕(19승)에 오른 왕치엔밍(뉴욕 양키스)이 대표팀에

서 빠졌지만 장치엔밍(요미우리 자이언츠), 귀홍즈(LA 다저스·이상 투수)와 린웨이주(한신 타이거스), 후진룡(다저스), 천몽지(시애틀 매리너스·이상 타자) 등 마일 프로야구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전력이다. 이런면에서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삼성이 지난 11일 대만 챔피언 라뉴 베이스에 예선리그 3차전에서 2-3으로 역전패하며 결승행 티켓을 넘겨줬다는 건 시사하는 점이 많다. 특히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은 대만 대표들에게 성적에서 압도당했다. 삼성 선수 중 아시안게임에 나갈 대표는 타자 조동찬, 박진만과 투수 오승환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라이트 흑적중 라일라 알리(오른쪽)가 12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여자 WBC 슈퍼미들급챔피언전에서 헬리 버튼의 레프트 펀치를 피하고 라이트 흑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알리가 4회 TKO승을 거뒀다. /연합뉴스